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9화 : 가자! 백산으로

봉준이 읊는 창의문은 장장 10분에 걸쳐 무장 읍성을 가득 채웠다. 그의 보국하는 마음과 탐관오리를 질타하는 음성은 이곳 무장현 장시에 모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봉준은 나날로 잔악해져가는 관리들의 학정은 물론이요,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국가에서 저버렸음을 절절하게 읽어나갔다.

장시 중앙에 모인 수많은 동학군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저마다 분을 삭이느라 뼈마디가 불거지도록 주먹을 말아 쥐었다. 가슴에 새겨진 불씨는 견잡을 수 없이 커져서 커대한 불덩어리로 응집되었다.

이어서, 개남의 괄괄한 음성이 4대 행동강령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하지 말라! 충효를 다하여 제세안민 하라! 일본 오랑캐를 멸하여 성도를 깨끗이 하라! 병을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귀를 진멸하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현세는 전율했다. 언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이 국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함에 따라 현장에 투입 되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와는 비교가 안 돼.’

정말 그랬다. 지금 이들의 반응은 수십만이 모인 콘서트장 보다 더 뜨겁고 열렬했다.

조각같이 수려한 외모에 빼어난 비율을 가진 이는 현세 자신 말고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봉준을 향한 환호와 함성은 아이돌 일곱을 합한다 해도 이겨먹기 힘들어 보였다.

너절한 농민의 옷을 걸치고 160cm도 안 될법한 자그마한 키에 봉두난발을 한 봉준의 위세는 정말이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봉준을 향한 현세의 눈빛이 밤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처럼 반짝거렸다.

‘진짜 찼어, 봉 형!’

현세는 군중을 압도하는 작은 거인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쪽 가슴에 손을 올렸다. 요동치는 심장박동이 곧 튀어나갈 기세로 쿵쿵거렸다.

경외감. 그 외에는 무어라 설명할 길이 없었다.

이 기세를 몰아 가장 오른편에 서있던 화중이 오른 팔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무장 관아가 우리 손에 들어왔다! 무장 현감 이철화를 생포하고 아전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동학군이여, 모두 쫓기하라!”

“와아아아아아!”

사운드를 최대치로 올린 것으로 모자라 스피커가 터질 것 같은 함성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화중이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가 군중의 귀에 정확하게 박혔다.

이제 보니 동학군의 핵심 3인방은 기차화통 그 자체였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쪽 위에까지 올라갈 것이여! 고창! 흥덕! 부안! 정읍! 태인! 금구! 김제! 모두들 모였제!”

잠시간의 정적이 흐른 후, 모두 주먹을 번쩍 들어올렸다. 평화로운 집회 속 알 수 없는 전운이 감돌았다.

“고창 여기있소!”

“정읍에서도 왔지라!”

“흥덕을 빼놓으면 섭섭하제!”

“김제 앞에서 누가 큰소리여!”

화중이 들어 올린 주먹에서 뿌드득, 관절 꺾이는 소리가 났다.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손마디는 허영게 질렸으며 손등위로 시퍼런 핏줄이 있는 대로 불거져 있었다. 속을 꺼내 보이지 않아도 그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역시 우리 형님! 최고로 멋있어요. 남자 중에 남자야.’

현세는 태산같이 드높은 처남의 뒷모습을 우러러 보며 덩달아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연희의 마음을 얻기 전에 일단 저 태산부터 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동학군이여! 진군하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평안히 하라!”

마침내 전라도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들이 한 갈래로 응집되기 시작했다. 현세는 그 중심에 자신이 서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생생히 실감했다.

부영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먼 길을 오느라 헤져버린 짚신. 오랜 굶주림으로 움푹 들어간 농민들의 볼 두 쪽까지. 현세의 두 눈동자에 한가득 담겼다.

현세는 그들의 사연을, 이곳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고난을 잠시나마 헤아려보려 했다. 늘 자신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그에게는 이 또한 무척 생소한 감정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

‘잠시 이준이라는 꿈을 꾸 건 아닐까. 지금이 진짜 현실일지도 모르지.’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가짜라 해도 현세는 그다지 슬프지 않았다. 이들을 승리로 이끌어 줄 수만 있다면 가짜 삶을 이용해먹는 것도 좋을 듯싶었다.

예전에는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출동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전부 벗어나 버린 후였다. 어쩌면, 정부쪽에서 퍼는 꿈수를 이쪽에서 잘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공무원도, 경찰 특공대도, 이준도 아니니까.

서있을 자리조차 없을 만큼 뻥뻥하게 모인 군중 속에서 봉준은 재집결의 의지를 다졌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이 굳세게 박힌 눈빛이었다.

“동학 제군들! 우리 모두 백산에서 다시 만나는 거여!”

“가자! 백산으로!”

봉준의 외침과 동시에 좌중을 압도하는 개남의 음성이 덧씌워졌다.

과연 개남 아재! 현세는 지축을 뒤흔드는 결의와 다짐 앞에서 스스로를 다잡았다.

조그만 종이 녀석에게 직접 토르의 망치가 되어주고, 곱디고운 연희의 머리에 어여쁜 비녀를 꽂아 주기로!

“와아아아아아!”

물밀 틈도 없이 모여든 인파로 장시의 풍경은 마치 뻥뻥이 들어찬 콩나물시루 보듯했다. 현세는 동학대표 3인방의 뒤에 서서 주변 풍경을 굽어보았다.

순간, 현세의 뒷덜미에 서늘한 소름이 등줄기까지 타고 내려왔다. 잔뜩 고무된 분위기 속 날카로운 금속이 반짝거리는 게 포착됐다.

‘칼?’

그의 본능이 불길한 징조임을 일깨우고 있었다. 아무리 동학군이 관아까지 털었다 한들, 지금의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던 차였다. 사로잡은 수령과 아전 또한 목숨을 거두지 않고 잡아 두기만 했을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진대, 칼이라...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했다.

흥분은 금물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짐작한 현세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쪽 가까이 있는 걸 보면 봉 형을 노리는 게 분명해.’

현세는 자연스레 봉준 뒤에 바짝 붙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왼편에 놓여있던 소달구지 뒤에서 동학군의 복장을 한 남자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다. 흥기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오른손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흥기를 소매 속에 감춰 둔 게 분명했다.

현세는 이를 사리물며 눈을 부릅떴다. 열여덟의 신선한 안구와 타고난 동체시력의 조합은 꽤나 쓸 만 했다.

‘언더커버라도 심어 둔거야? 이야, 대단한 걸?’

삼시간에 계산을 끝낸 현세는 돌진해오는 남자를 향해 몸을 돌려세웠다. 잠시 흠칫 거리던 남자는 이내 자세를 고쳐 잡고 시치미를 떼며 이쪽으로 천천히 접근해왔다. 현세는 한쪽 입꼬리를 추켜세우며 픽, 웃었다.

‘감히 우리 봉 형을 찌르려고? 와라.’

도발적인 현세의 기세에 남자는 떼던 걸음을 다시 멈추고 핏발이 성성한 눈을 들어 올렸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송이가 역도의 우두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꼴이 가소롭게 느껴진 까닭이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꼬맹이.’

‘너야말로, 늑탱이.’

두 사람의 피 튀기는 기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를 알 턱이 없는 봉준과 화중은 교리와 행동강령을 설파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현세는 자신의 손바닥을 의식하며 이를 악물었다.

살상 기술을 수없이 배우고 삶과 죽음의 담벼락을 아슬아슬하게 건너온 그였지만,

제 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는 딱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단 제압부터 하자.’

그리 마음먹은 현세는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밀며 단전에 힘을 주었다. 의문의 남자 역시 즉각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일촉즉발의 상황답게 현세의 손바닥이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그래도 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곳에서 봉준이 암살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동학군의 구심점이 흩어져 버릴 게 분명했다.

현세는 그것을 막기 위해 ‘찐 조선’에 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이윽고, 암살자의 발걸음이 쾌속을 그리며 삼시간에 빨라졌다. 무슨 무협지에 나온 것 마냥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떨어질 만큼 민첩한 몸놀림이었다.

현세는 봉준의 귓가에 대고 소리쳤다.

“봉 형, 자객입니다!”

빌어먹을 무협지! 더럽게 오글거리는 대사가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현세의 잇새로 튀어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딴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현세는 봉준의 어깨를 제 뒤쪽으로 재끼며 남자가 휘두르는 칼날을 유연하게 피했다. 이상을 감지한 개남과 화중이 이쪽으로 시선을 던지는 사이, 또다시 번뜩이는 칼날이 현세쪽으로 날아들었다.

“죽어라! 애송이!”

뭐야!? 상대방도 현세 못지않게 손발이 곱아드는 대사를 잘도 던져댔다. 현세는 칼보다도 그게 더 소름끼쳤다.

불행히도 상대방 자객은 현세의 무도 실력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현세의 주짓수 띠는 무려 갈색이었다. 그것도 3줄짜리. 어디 그것뿐인가? 특공무술 3단, 유도 4단에 킥복싱까지 취미로 삼고 있었다.

딱히 여자나 게임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은 덕을 이곳 조선에서 보고 있을 줄이야! 현세가 목공 아재들에게 자신을 ‘인간병기’라고 칭한 것은 과언이 아니었다.

하체의 중심축을 부드럽게 회전시킨 현세는 자객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지랄 마!”

시속 60km에 버금가는 속도를 실은 현세의 길쭉한 다리가 남자의 관자놀이를 있는

힘껏 후려쳤다. 말 그대로 뻑!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 고개가 반대로 뒤틀렸다.

그가 쥐고 있던 칼은 벌써 저만치 날아간 후였다.

현세는 발끝을 툭툭 털어내며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래도 바뀐 몸이다 보니, 마음대로 딱 따라주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나마 열여덟이니 이정도지, 40먹은 아재의 몸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그는 잔뜩 긴장된 오른다리 허벅지를 톡톡, 두드리며 나직이 말했다.

“어디서 사시미같은 걸 들고 와서 깎치고 난리세요, 아저씨. 여기 봉 형 바쁜 거 안 보여? 누가 아저씨한테 이런 거 하라고 시켰어?”

개남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지 입까지 떡 벌리고 있었다. 입만 동동 살아있는 놈인 줄 알았더니 실력도 보통이 아닌 듯했다.

봉준이 새파란 애송이를 왜 이리 편애하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가 너 발재간이 겁나 살벌하구나! 누구한테 배운겨? 봉준이?”

현세는 씨익, 웃으며 양 어깨를 으쓱거렸다. 봉준이 쉽게 암살 될 인물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차분할 리 없었겠지.

그의 예상대로 봉준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듯했다. 동학군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가 남접(전라도 지역에서 처음 거병한 집단)의 구심점이 된 이상, 무리는 아니었다.

그래도 현세는 봉준의 신뢰도 포인트를 획득했다는 사실에 퍽 만족했다.

“봉 형의 뒤는 이 아우가 맡을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현세는 한쪽 눈을 찡긐,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분위기가 어찌나 훈훈한지 그들을 에워싼 농민들은 자객이 습격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봉준은 현세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가자, 백산으로.”